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습니다.

나, 그리고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당신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당신은 죽은 후, 어떻게 장례식이 행해지는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당신이 속한 사회의 풍속에 의해 행해지겠지요.

나는 여기에서 한국의 장례문화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7일장이라 하여, 사람이 죽은 후 7일만에 장례가 행해졌습니다. 시체는 삼베로 만들어진 의상으로 갈아입혀지고, 7일간 입관됩니다. 그 기간에 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가족 중, 몇사람(보통 자기(;죽은 사람)의 자식)은 큰소리로 울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일간, 이와 같은 것을 행하고 나서 장례를 합니다. 그것에 연 관해서 7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간단하게 3일장 내지는 2일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무덤에 매장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토의 면적이 좁고, 인구는 많게 되었기 때문에, 매장문화는 사회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매장문화는 국토의 황폐화와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이 매장문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화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교사상이 강하고, 화장에 대한 사람들(특히, 노인)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화장은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납골당을 많이 설립하고, 화장을 권장한다면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매장문화보다도 화장문화가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